

“이젠 정시다” 원서접수 30일 시작...공통원서 미리 확인해야

4년제 대학 내년 1월3일까지
전문대학 31일~2022년 1월12일
한국에너지공과대 등은 자체 접수

4년제 대학은 오는 30일, 전문대는 31일부터 2022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시작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30일부터 표준 공통원서 접수서비스를 통해 2022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입학원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4년제 대학은 30일부터 2022년 1월3일까지 가

나다 3개 지원군 중 하나를 선택해 접수해야 한다. 별도로 전문대학 정시모집은 31일부터 2022년 1월 12일 중 접수한다. 2016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도입된 공통원서접수 서비스는 한번 작성하면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에는 일반 188개교, 전문 135개교, 기타 5개교 등 대부분 대학에 지원 가능하다. 수험생은 통합회원 아이디(ID)를 이용해 유웨이어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 등 원서접수 대행사에 접속

한 후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통원서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계좌정보, 출신학교 정보 등을 기입하고, 공통 자기소개서는 지원 대학이 요청할 때만 작성하면 된다.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는 희망 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수정 후 제출도 가능하다. 공통원서 및 공통자기소개서는 '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 원서접수 대행사에게 주고받을 수 있다. 지원할 대학을 선택한 후, 공통원서 항목을 확인·수정하고 대학 지원사항과 사진 등 대학별 추가입력

사항을 작성하고 저장하면 된다. 수시모집 기간에 작성한 회원정보와 공통원서가 있다면 정시모집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다. 사전에 가입하지 않은 수험생은 미리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준비해야 한다. 입학전형료는 개별 또는 대행사별로 묶어 선택 결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공과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주과학기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경철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일

부는 자체적으로 원서를 접수한다. 수험생들은 원서를 접수할 컴퓨터에서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면 콜센터(유웨이어플라이 1588-8988, 진학어플라이 1544-7715)에 문의할 수 있다. 대교협은 "사용자 컴퓨터 환경, 특히 인터넷 브라우저는 업데이트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의 오류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며 "공개된 장소의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프로그램 설치 오류 등으로 인해 원서접수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불법한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빅도어 26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빅도어(BIG DOOR)가 '2022 HAPPY NEW YEAR' 문구와 화려한 조명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남구, 세계김치연구 손잡고 '통일김치' 연구·개발 본격화

광주시 남구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와 손잡고 통일김치 연구·개발에 나선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남구청 7층 상황실에서 김병내 구청장과 장해춘 세계김치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김치 연구·개발 및 문화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 체결에 따라 통일김치 연구·개발을 비롯해 남과 북이 각각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김장문화에 대한 공동 등재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우선 통일김치 연구·개발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학술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 여름 배추의 수급 불안정 문제 해소 차원에서 오는 2023년부터 북측의 고품질 배추를 수급하기 위한 재배지 조사도 검토 중이다. 조사 지역은 북측 양강도를 비롯해 개마고원이 위치한 함경도 고원지대 일대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21년 자활 분야 평가

광주 북구, '대통령상'

광주시 북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북구는 그동안 전국에서 처음 조성한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을 운영하며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생산품 인식 개선·홍보 등 자활근로 사업단의 매출증대와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또 동산·일터·희망 3곳의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독거생활자 안부살피기, 무료이불세탁, 접수리, 청소, 소득·방역 등 취약계층 돌봄 및 복지 서비스 향상에 노력했다. 향후 지역자활센터, 58개 사업단과 협력해 일자리 제공, 취약업 지원 등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서구 주민 67% “층간 소음 겪는다”

광주21교육상담센터 조사 오후 7~9시 가장 많이 발생

광주시 서구지역 주민 10명 중 7명이 층간 소음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지난 9월 여수에 사는 30대 남성이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부부를 숨지게 하는 등 층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조사 결과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층간 소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광주21교육상담센터 '층간소음 줄이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서

구 지역 주민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7%가 층간 소음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층간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로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69.9%)였으며, 뒤이어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20.8%), 오전 7~9시(5.9%) 순이었다. 층간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거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층간 소음이 주로 발생하는 공간으로 거실(57.2%)→작은방(10.8%)→안방(10.5%)→욕실(9%)→부엌(6.3%) 순으로 꼽았다. 층간 소음을 겪은 주민 가운데 20%는 소음이

일상생활에 신경이 쓰일 정도라고 응답했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 소음(복수응답)으로는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 33.8%, 윗집 어른들 뛰는 소리 31.6%로 '뛰는 소리'가 가장 신경 쓰인다고 답했다. 뒤이어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25.5%), 에어컨 실외기 소리(24.7%), 피아노 등 악기소리(16.8%), 베란다 물 소리(13.8%)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층간 소음의 발생 원인으로 위아래층 거주자의 배려 부족을 꼽으면서도 건설회사의 시공 기술과 건축 관련 법규의 관대함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동구, 온기쉼터 운영

광주시 동구가 본격적인 겨울철 추위를 앞두고 온기 쉼터 8곳을 마련했다. 26일 동구에 따르면 한파에 대비해 동구민과 방문객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온기텐트를 행인의 왕래가 많은 주요 버스승강장에 설치했다. 온기텐트 설치 위치는 ▲동구문화센터 앞-건너편 ▲소태역 ▲화동중심사입구역 ▲산수오거리 ▲두암지구 입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승강장 8 곳이다. 혹한이 불규칙한 기후변화 속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을 선정해 잠시나마 추위와 강한 바람을 피해 따뜻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남원, 달빛에 물들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기획전
이흥재 사진전

2021. 11. 24.(수) - 2022. 02. 27.(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갤러리2,3

*상설전시 "개화동동(開花冬冬)-겨울에 핀 붉은 꽃"-갤러리
전북 남원시 함파우길 65-14 T.063)020-5660



N K A M